

만남

2023년 1월
통권 21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마산교구 사목교서	-----	3
신앙생활 나눔 / 김진호 프란치스코	-----	6
소공동체 모임 자료	-----	8
세레 평화의 날 담화	-----	11
영적 상담	-----	16
성경 속의 사람들	-----	18
축일을 축하합니다	-----	21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2
공동체 소식	-----	23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4
월 중 행사표	-----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6
미사안내	-----	27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교육자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이 되어 경쟁보다는 형제애를 가르치고 특히 가장 어리고 힘없는 이들을 돕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23년 마산교구 사목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마산교구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코로나 시국으로 지난 몇 년간 힘들었습니다.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3년에도 주님의 이끄심과 현존을 믿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작은 교회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건 큰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새해에는 현실의 밝은 쪽을 더 많이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떠올리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어제든 오늘도 영원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히브 13,8).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시도한다면 도와주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지난해도 우리는 몰랐지만, 그분께서는 분명 기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요한 2,1-12).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해 왔던 교구청 신축을 끝내고 새로운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교구장 주교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산교구라는 질그릇 안에 하느님께서 넣어주신 보화는 분명 신부님들과 교우님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 활동으로 서서히 돌아가야겠습니다. 미사참여와 기도생활 그리고 복음화에 헌신했던 행동들을 점검하며 실천에 옮겨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이 감사와 기쁨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예전의 다양한 교육들을 새롭게 동원해 이러한 메시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신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도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겸허하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쇄신이 함께 해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내적쇄신이 나무라면 기도생활은 뿌리입니다. 묵은 것을 뛰어넘고 새롭게 나아가려면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생활에서는 남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당 활동에서도 아무 계산 없이 주님께 시간과 열정을 바친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뿌리를 강하게 하는 믿음의 길이며 행동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2023년에는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되면 삶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매일의 기도와 본당 공동체 기도에 충실하다 보면 이러한 체험들이 조금씩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침기도와 저녁기도 그리고 묵주기도를 매일 바칠 것을 다짐해 봅시다. 주일미사 참여 빠지지 않을 것도 결심해 봅시다.

교우 여러분,

새해는 주님축복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염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 속 몇몇 습관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삶을 어둡게 하는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시도를 결심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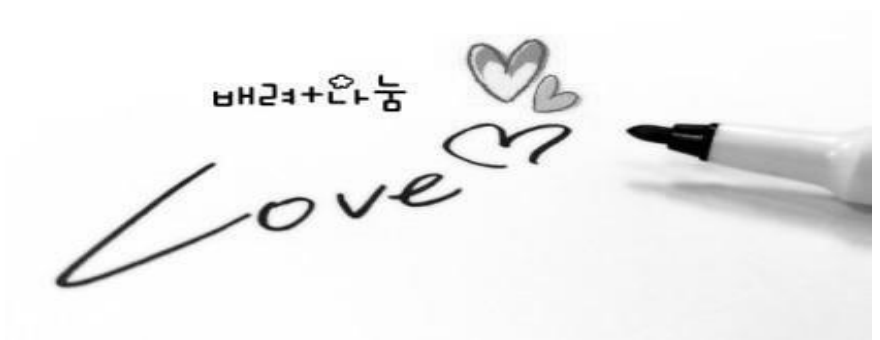
삶의 변화를 청하는 기도를 정월 첫날부터 바칩시다. 그리고 한 해 내내 그러한 기도를 바칠 것을 결심합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대세입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려면 은총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기도와 성사생활 참여는 은총을 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매일의 기도에 충실하고 가끔은 성경을 접하며 주님 목소리를 들으며 사시길 기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1요한 4,16).

<실천 사항>

1. 주일미사 참여, 빠지지 맙시다.
2. 평일미사에 자주 참여하며 영성체합시다.
3. 아침, 저녁기도와 묵주기도를 매일 바칩시다.
4. 공소와 성지를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합시다.
5. 본당 사도직 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활동합시다.
6. 개인별로 혹은 단체로 매주 한 번씩 성경공부를 합시다.

2023년을 준비하는 대림 첫 주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 만남 그리고 이별 (김진호 프란치스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수학의 계절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어온다. 추운 날씨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나간 세월이다. 지나간 세월을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보다는 쏠살같이 빠르게 도망치고 있는 세월을 원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무의식중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생각하며 벽에 걸린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며 씩씩히 웃었다. 웬지 오늘 따라 달력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하게 필러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벽에 걸린 달력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빨간색갈의 숫자 24, 25, 26일 성탄절이 휴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다. 이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날이 되면 온 세상은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힘찬 환호 소리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하며 성탄을 축하한다. 이 거룩한 밤을 만나는 순간에 모두가 기쁨의 축배잔을 들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서로 나눈다. 성탄의 기쁨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들 곁에 찾아오는 것은 이별이란 슬픔이 있다. 지나간 8760시간을 함께 살아온 시간들과 이별이란 아쉬운 순간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새 시간을 만나고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쉬움과 새해를 만나면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기쁨의 삶이 연속되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만남과 이별이란 의미는 만남은 기쁨을 이별은 슬픔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과 이별이란 우리들의 삶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겪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만남의 시작이 되고 이와 같이 이별이란 순간을 만나게 된다. 우리들의 만남이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비로운 하느님의 작품이기에 만나는 순간부터 이별하는 순간까지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저는 새로이 밝아오는 새로운 날을 만나고 있다.

하루는 이렇게 쉽게 만나고 또 쉽게 보내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올 하루 앞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행복을 희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순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오늘이란 제 삶에서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소중한 날 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그 누구나 세상에서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천사같이 살고 싶지만 희망대로 다 그렇게 이루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인간의 삶이다. 가끔은 짜증스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순간 고통스러움도 만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 실망하고 억울해 비탄하게 되면 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지켜주시는 이가 있음에 감사하며 산다. 그분은 항상 제 편에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주시며 반성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님, 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고 있기에 저는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있다.

이 순간까지 저에게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교우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축복으로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김진호(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어린양 (요한 1,29-34)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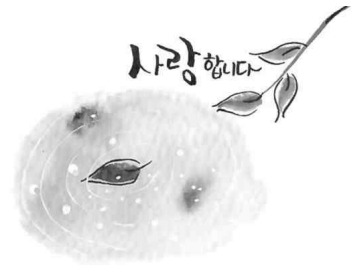
☞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나는 주님께서 알려지시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느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무엇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도 즐겨 보고 듣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을 보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자주 참례하여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신비를 많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하느님에 관한 증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주 듣고 봄으로써 우리도 요한처럼 거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탁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6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23년 1월 1일)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출발하기

1.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1테살 5,1-2).

이 말씀으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카 공동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공동체를 변함없이 지키도록, 그들의 마음과 발을 굳건하게 뿌리박게 하고 그들의 시선을 주변 세상과 역사의 사건들에 고정하도록 그 공동체를 격려하였습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불의와 고통의 어둡고 힘겨운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다정히 동반하시며 지쳐 있는 우리를 지탱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을 신뢰하고자 마음을 열어두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바오로 성인은, 선과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며 깨어 있으라고 공동체에 끊임없이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1테살 5,6). 바오로 성인의 말은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체념으로 침잠하지 않고 혼란이나 실망에 굴복하지 않으며 계속 깨어 있으라는 초대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지켜보는 파수꾼과 같아야 하고 새벽의 첫 빛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곤두박질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우리의 계획과 생활 습관을 틀어지게 하였으며 심지어 가장 부유한 사회에서 보였던 평온함도 깨뜨렸습니다. 혼란과 고통을 만들고 수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도전의 회오리바람과 과학적 관점에서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완화하고 가능한 치료법을 찾아내고자 전 세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시에 정치 권력은 위급상황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체계화하고 관리하고자 조처하여야 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물리적 양상에 더하여, 많은 개인과 가정에 전반적인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장기화된 격리 기간과 자유에 대한 여러 제약이 중대한 장기적 여파와 함께 이러한 불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들추어낸 우리의 사회와 경제 질서의 균열 그리고 전면에 드러내 버린 모순과 불평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특히 가난한 이들과 어려움에 놓인 이들에게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고독의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세상 여러 곳에서 봉쇄 기간에 일자리 없이 그리고 아무런 지원 없이 남겨진 수많은 비공식 노동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담과 비통의 감정들을 만들어 내는 조건들 속에서 진보를 이루어낸 개인과 사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사회 갈등과 좌절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조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우리 세상의 가장 평화로운 부분조차 뒤흔들었고 취약함의 여러 형태를 드러낸 듯합니다.

3. 3년이 흘렀고 이제는 우리가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질문하고 배우며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적절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들에서 언제나 똑같이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곧 이전보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말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낡은 습관의 족쇄를 풀어버리려면, 더욱 잘 채비하고 있으려면,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길들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명과 희망의 표징을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허약함을 직접 겪은 뒤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위대하지만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물은, 형제자매요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류애임을 깨달았고, 아무도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형제애가 자라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보편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드높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추구해 왔던 정의와 화합과 평화의 약속 자체를 양보하면서까지 우리가 진보와 기술과 세계화의 효과를 과신할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우상화에 중독된 상태로 변해 버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안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 빈곤과 소외의 문제는 불안과 갈등에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폭력과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이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 효과로는 은혜로운 겸손의 회복, 특정 소비주의 주장들의 재고, 타인의 고통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에 더욱 잘 응답하게 해 주는 연대 의식의 쇄신이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영웅적이었던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이가 위기와 그 혼란에서 벗어나게 도우려 최선을 다하여 쉬지 않고 일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민족과 나라를 비롯하여 모든 이가 “함께”라는 말을 다시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더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함께, 형제애와 연대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보장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도전에 대처하려고 각자 개별 이익들을 뒤로하고 힘을 모았던 사회 단체들, 사립·공립 기관들, 국제 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형제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평화라야만 우리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전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끝났다는 희망을 감히 품었던 그 순간에도 끔찍한 새 재앙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재앙의 사나운 공격을 목격하였습니다. 곧, 어느 모로는 코로나19에 비견되지만 비난받아 마땅한 결정이 부추긴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죄한 희생자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고,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이들만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 이차적 영향의 고통을 겪는 이들 사이에서도 모든 이에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불안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곡물 부족과 연료 가격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는 우리가 바라거나 기대하던 코로나 이후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다른 분쟁과 더불어 이 전쟁은 직접적으로 관계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패배를 나타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찾았지만, 전쟁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해치는 바이러스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르 7,17-23 참조).

5.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겪은 위기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역사의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습적 기준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개인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자리를 갈구하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 큰 공동체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두고서 공동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데에만 몰두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두 우리 사회와 우리 지구를 치유하는 데에 애쓰고,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참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데에 진심으로 헌신하도록 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급 상황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들이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개별 문제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책임과 연민의 정신으로 우리 세상의 도전들을 직면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를 위한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빈곤과 죽음을 초래하는 분쟁과 전쟁을 종식하는 활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데에 그리고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우기 위한 분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 시급히 동참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면서, 불평등이라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모든 이를 위한 식량과 품위 있는 노동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이의 문제는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주민과 우리 사회들이 내버린 이들을 환대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느님의 무한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힘입은 이타심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관대하게 응답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성찰들을 나누면서 저는 다가오는 새해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교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와 정부의 최고 수반들, 국제 기구들의 수장들,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선의를 지닌 모든 이가 평화의 장인으로서 이번 한 해를 잘 일구어 나가도록 날마다 애쓰리라는 믿음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평화의 모후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온 세상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바티칸에서
2022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질문

Q. 저는 걱정이 많아서 탈입니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제 마음 안에서 걱정을 전부 다 없애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A. 걱정 때문에 힘드신가 봅니다. 사실 많은 분이 걱정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데, 정작 걱정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걱정은 인생에서 필요없는 것, 즉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걱정이 마음과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단견입니다. 걱정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존 기제입니다. 걱정이 갖는 기능이 무엇일까요? 걱정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다시 말해 걱정이 있어야 문제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가장은 돈 벌 생각을 안 할 것이고, 주부들은 저축할 생각을 안 할 것이며, 아이들은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하고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걱정해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걱정이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적금을 들게 하는 등 앞날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 걱정은 영성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걱정은 '존재의 불안'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이 허망하고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어떤 영성적 의미가 있을까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고통받는 삶은 내 존재 의미를 알 기회이고,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통해 내적 힘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걱정은 아무 때도 쓸모없는 것이나 없애버려야 할 것이 아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필수요소입니다. 그럼 해로운 걱정은 어떤 경우일까요? 걱정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때입니다. 걱정의 양이 지나치면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교통체증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차들처럼 머릿속의 이성적 판단기능이 마비됩니다. 다른 감정들도 그렇지만 걱정 역시 아주 없어서도, 아주 많아서도 안 되는 요소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나친 걱정에서 손을 놓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날에 대해 강박적인 확인을 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인생사도 앞날을 예측은 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자 갈브레이스가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파했는데, 것처럼 인생의 앞날은 변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해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걱정이 떠나질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걱정하는 동안은 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주술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걱정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종일 걱정을 하면서 살면 온종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해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심리상담에서는 차라리 하루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컷 걱정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걱정은 붙들어 매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처럼 걱정하는 시간은 실컷 걱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걱정을 어디엔가 붙들어 매두고 살아야 실속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임을 가지면 걱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걱정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인생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경직된 신앙관을 가진 분들 가운데 걱정은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 걱정에 시달리는 분을 더 힘들게 하고, 믿음에 대한 강박증에 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 걱정한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 마음은 그리 강하지도 굳세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하면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줄 여지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함께 기도해줄게"하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다윗 3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을 피해 달아나 치클락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죽자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됩니다(2사무 2,1-7). 다른 지파들의 연합체인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우지만 곧 그는 살해되고 맙니다(2사무 2,8-11; 4,1,12).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지고(5,1-5)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5,6-12) 계약 궤를 그리로 옮겨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합니다(6,1-23). 이제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민족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며, 왕정 체제를 굳혀갑니다(8장, 10장). 이제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권력의 맛에 취했나 봅니다. 1사무 8장에서 사무엘이 경고했던 임금의 폐해가 현실화합니다. ‘임금이 너의 아들, 딸, 재산, 종들까지 가져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11,1-12,31).

이 이야기는 ‘라빠’라는 성읍을 점령하기 위한 전투를 테두리로 하고 있습니다(11,1; 12,26-31). 이스라엘의 전군이 출전했고(11,1,11) ‘계약 궤’까지 나갔다고 하니, 이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뭔가 사달이 날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장에 나가 있을 때, 다윗은 한가로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전투에 나간 병사의 아내입니다. 남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잠자리를 같이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여인은 임신을 하고 이를 알립니다(11,2-5).

그러자 다윗은 남편 우리야를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자신의 ‘은밀한’(12,12)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야에게 집으로 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밤을 보냅니다. 다윗은 그를 불러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야가 대답합니다. “계약 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11,11) 당대의 풍습에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금욕을 통해 자신을 정화했습니다(1사무 21,6). 전투란 단순한 인간적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 - 주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곳, 곧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라는 이해 때문입니다. 우리야는 히타이트 사람,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임금 다윗보다 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역시나 우리야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세 번째로 우리야를 불러 술을 먹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취중에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6-13절).

초조해진 다윗은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손에(!) 그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들려 전투 지휘관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야는 치열한 전투의 공방 속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취하고 아들을 얻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밀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가 벌인 일들은 이미 여럿이 알거나 눈치챈습니다. 밋세바를 궁전으로 불러온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야의 죽음을 알리는 전령도 조금은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야를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밀어 넣어 죽게 한 요압은 이 사건의 내막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보내는 전령에게 하는 말(11,18-24)이 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의 화를 가라앉힐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이 한 마디가 전투에서의 패배 소식을 듣고 분노하는 임금에게서 ‘격려의 말’(25절)을 끌어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렀다.”(11,27)

예언자 나탄이 불쑥 궁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던 부자가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이의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탄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12,1-7)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9절) 주님의 책벌이 예고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10절)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서는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13절)

그러나 그에 따른 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불륜의 아이는 죽습니다. 또한 아들 압살롬이 다른 아들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13,23-37)이 일어나고, 압살롬이 반란(15,1-18,17)을 일으켜 도망자의 삶을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읽다 보면 ‘이 간교하고 양심도 없는 임금을 하느님은 어찌 그대로 두시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다윗을 마지막에 용서하시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회개하는 모든 이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과 악에서도 선을 끄집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산	28일	카롤리네	김계희
21일	아네스	유곡지 김잔디 정진아 김혜원 정인실 정선미 전우연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백정선
			31일	요한 보스코	강석길
27일	안젤라 메리치	최희주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리오	김형철(O)
5일	시메온	김석주(H)	21일	아네스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8일	지그리드	Giersberg Sigrid(O)	27일	안젤라	김영희(H)
17일	안토니오	문철주(H)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고광완(B)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237	221	165	238
8일	487	220	182	100
15일	22	332	160	31
22일	66	215	163	77
29일	434	210	179	437

❖ 1월 전례 봉사 ❖

1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커피봉사
1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김치수(도미니코) 김영희(클라우디아)	박노아(노아)	요셉 마리아
8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세실리아)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1구역
15일	청년회	청년회		2구역
22일	정정숙(아나벨) 김매자(베로니카)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3구역
29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한말조(마리안나) 이순자(마리아)		4구역

♥ 1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2월 22일 기준)

강신행, 권지연, 강순행, 김민옥, 김정미, 영희 Eggerstedt, 심동근, 우동천, 윤석순, 이정수, 정마리아, 정명옥, 최장용, 최순남

❁ 계좌 입금(12월 22일 기준)

박종래, 강일남, 김동수, 김부남, 김대현, 손수희, 김유석, 김원자, 김진호, 김치수, 남궁춘배, 배성우, 박정은, 백정선, 신유경, 송문규, 육종인, 이서석, 이명원, 이공종, 이영원, 이성원, 이석우, 이경규, 이철우, 정정숙, 최종금, 최성자, 허길조, 허두옥, 허채열, 허선애, 현영애, 춘옥 Zerbock, Alice Eilinghof, 옥수 Ranitzsch, Caroline Tunas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 월말 경상비 잔액은 20.712,62유로입니다.

(2023년 매일미사 대금 선지출 : 18.000유로 포함 = 22.512,62유로)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1월 1일(일)은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미사는 15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하며, 미사 후에는 신정을 맞이하여 떡 나눔이 있겠습니다.
3. 1월 22일(일)에는 설 합동위령미사를 15시에 예수성심성당에서 봉헌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사 후에는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4. 1월 24일(화) - 26(목)에는 본당신부 휴가 관계로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5. 2월 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날,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19시에 만남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초 축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2월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2023년 1월 28일(토)로 변경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 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학생)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총무		
청년회(직장)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총무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세계 평화의 날)	구역 봉사자 회의	
2	월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화			
4	수			
5	목			
6	금			
7	토			브레멘 미사
8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청년회 기도 모임	
9	월	주님 세례 축일		
10	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꾸리아	
11	수			
12	목			
13	금			
14	토			오스나브뤼크 미사
15	일	연중 제2주일	요셉,마리아회 모임	
16	월			
17	화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18	수	일치주간		
19	목		연령회 월례회	
20	금			
21	토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하노버 미사
22	일	설 (하느님의 말씀 주일)	설 합동위령미사	
23	월			
24	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25	수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순교자 정찬문 안토니오 치명일(1867년)		
26	목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금			
28	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브레멘 미사
29	일	연중 제4주일(해외 원조 주일)	사목회	
30	월			
31	화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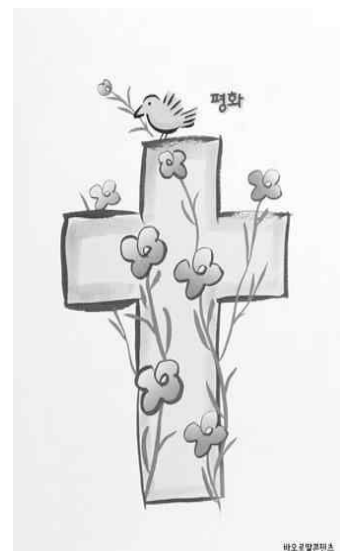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